

2022 임인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가 주관하는 2022 임인년(壬寅年)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春享大祭)가 3월 15일(음력 2월 13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예년 같으면 춘향대제 때 참제원이 100여 명 참석하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인원을 최대한 줄여 50여 명만 참석하였다.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어제 비가 내린 바람에 안동지방은 약간 해갈이 된데다 주변이 깨끗하게 변해서 춘향제 봉행하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이날 권오신 안동권씨 좌윤공파종회장, 김휘동 전 안동시장 겸 안동김씨안동화수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참제원 분정(分定)은 태사묘 송보당(崇報堂)에서 김시일(金時鎰)씨가 담당하여 현관(獻官)과 제관(祭官), 참제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서 분정례(分定禮)를 마쳤다.

분정은 초현관 권혁근(權赫根, 경주운곡서원 관리위원회 위원장), 아현관 김시년(金時年), 종현관 장기용(張基鎔), 집례 권기영(權奇嶺), 죽관 권용호(權容浩), 김광진(金光鎮), 장은주(張銀周)씨가 각각 담당하여 1시간 30분에 걸쳐서 흐트러짐 없이 엄숙하게 춘향대제를 봉행하였다. 현관, 죽관, 제례위원,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과 도포(道袍)로 갈아입고 향사(享祀)를 봉행하였으며 봉행이 끝나자 송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송보당에서 응복례를 하였다.

응복례가 끝나자 장수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송보당에서 2022년도 태사묘대당회의(太師廟大堂會) <보도부장 권영건>

會議)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도유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 및 감사보고, 2022년도 예산안,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초현관을 맡았던 권혁근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춘향제 때 수임으로서 실수가 없었는지 궁금하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견승을 빈다”고 말했으며 김효진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자”며 건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장수식 사무국장은 작년 3월 3일 160만 원의 예산으로 태사묘 상수도 배관교체공사를, 7월 8일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등 후손 5명이 태사묘를 알묘(謁廟)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각종 행사와 일 18건을 경과보고 했다. 이어 장은주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자 자산보고, 2021년도 결산보고, 2022년도 예산안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정창 신임 태사묘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대사묘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기타 토의에서 김휘동 전 안동시장 겸 안동김씨안동화수회장은 “현재 태사묘 춘, 추 향사는 김씨, 권씨, 장씨 등 삼문중(三門中)이 맡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동시와 삼문중이 돌아가면서 향사를 치룰 것”을 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옛날 고려 때는 안동부(安東府)가 태사묘 향사를 맡아 치룬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점심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값을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 임기 마지막 회의 개최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 주최 2022년도 태사묘관리위원회 임기 마지막 회의가 3월 6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太師廟) 송보당(崇報堂)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김효진 태사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용주, 장기용 부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장수식 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묘우망배(廟宇望拜), 국민의례, 상읍례(相揖禮)를 한 후 김재현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였으나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토지는 임차

인과 임대료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려면 법적 처리를 해야 할 형편이라고 보고했다. 또 오는 3월 15일 개최할 태사묘 춘향제(春享祭)는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추천을 받아 도유사(都有司) 1명, 현관(獻官) 2명, 유사(有司) 4명, 죽관(祝官) 1명을 각각 지명하여 망기(望記)를 보내기로 했다.

이번 춘향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종전처럼 참제원(參祭員)을 많이 초청하지 않으며 점심 식사도 다 같이 모여 할 수 없으므로 참석자에 한하여 1인당 1만원의 점심 값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 신임 태사묘 인수인계는 3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할 계획이다.

김효진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임기 2년 동안 경험도 없고 실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봐주어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위원장직 임기를 마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자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이 점심식사를 같이 할 수 없어서 1인당 1만원씩 점심 값을 지급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21)



토정 이지함은 본관이 한산(韓山)·현재 충청남도 서천군의 동부 한산면 일대로 백제 때는 마산군(馬山郡)이었고 고려초에는 한산현(縣) 고려 말에는 한주(韓州)였고, 조선 초인 1413

년에 한산군으로 공주목에 소속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서천군에 병합되었다. 한산 이씨의 시조는 이운경(李允卿)이고 토정은 시조로부터 13세손이다.

고려 말의 성리학을 뿌리내리게 한 가정(稼亭) 이곡(李穡, 1298~1351, 시호文孝)의 토정의 7대조, 여말(麗末) 삼은(三隱;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애은 길재)의 1인이며 보문각·예문관 대제학,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고 재상이었고 고려 조에서 최충(崔沖, 984~1068, 시호文獻),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시호文忠) 등과 함께 최고유학자인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시호文靖)은 토정의 6대조이다. 목은이 하토정의 직계 조상으로 시호를 받은 이가 4명이나 되었고, 부친은 혼령(溫陵) 이치(李穡)였고, 백형은 인종 때 ‘백의정승(白衣政丞)’ 칭호를 들었던 이지번(李之蕃)이고 조카는 이산(李善) 등이다.

토정은 자(字)가 형중(馨仲), 호는 토정·수산(水山)이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고 큰형의 보살핌과 학문을 배우다가 화담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셨다. 당시 정국(政局)과 사회풍조가 중종 때 기묘사화(1519) 이후와 명종연간(이부파하여, 선비 학자가 벼슬하기 위하여 과거를 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였다. 당시 나라에 뛰어난 학문과 뜻을 지닌 대표적 사림이었던 학담 서경덕, 남명 조식, 일재 이항 등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벼슬에 나아가는 출사(出仕)를 꺼렸다. 이지함은 당시 정국의 혼란과 개인적인 문제(장인이 종실로서 역적으로 무고를 당함)로 과거에 응하지 않다가, 훈탁하고 부패한 명종 시대가 선조의 등극으로 정국이 쇠퇴되고 사립파가 서서히 중앙정계에 등장하던 시기인 선조 6년(1573) 5월에 선조가 명하여 이조로 하여금 명경행수(明經行修)의 ‘탁행지사(卓行之士)’를 추천하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뽑히어 일명 ‘오현사(五賢士: 서경덕의 제자인 이지함, 조식·具植의 제자인 최영경·崔永慶, 정인홍·鄭仁弘, 이황·李滉의 제자인 조목·趙穆, 이황·李恒의 제자인 김천일·金千錫)’로서 그의 학문사상과 그 인품이 당대에 일류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당시 과거의 문제점은 보완한 것이고 종종 때

현량과(賢良科)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동아시아 인재등용은 과거제도가 있기 전에는 중국의 한(漢)나라·선거제(選舉制), 위(魏)나라 때·구품 중정제(九品中正制) => 인재추천으로 관리를 등용하였다.

중국의 후한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 초평(初平) 3년(192년) 동탁(董卓)의 주살(誅殺) 이후부터 삼국시대(위·蜀·오)의 청제건원 220~280)에 이은 서·동진(西·東晉, 265~420)과 남북조(南朝, 오·동진·송·제·양·진 6조: 222~589년 / 北朝, 오호五胡: 豐ノ·선비·저·갈·강족의 16국, 304~581)을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晉) 왕조와 북조의 북주(北周) 왕조를 계승하여 약 370~800년간을 통일한 선비족 출신인 수(隋)나라 문제(文帝 : 푸堅) 개황(開皇) 15년(595년)에 과거제를 확립실시 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라 때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등이 있으나 인재등용과 직접 연관된 과거제 확립실시는 고려 광종(光宗) 12년인 광덕(光德) 12년(222~589년 / 北朝, 오호五胡: 豉ノ·선비·저·갈·강족의 16국, 304~581)을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晉) 왕조와 북조의 북주(北周) 왕조를 계승하여 약 370~800년간을 통일한 선비족 출신인 수(隋)나라 문제(文帝 : 푸堅) 개황(開皇) 15년(595년)에 과거제를 확립실시 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라 때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등이 있으나 인재등용과 직접 연관된 과거제 확립실시는 고려 광종(光宗) 12년인 광덕(光德) 12년(222~589년 / 北朝, 오호五胡: 豉ノ·선비·저·갈·강족의 16국, 304~581)을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晉) 왕조와 북조의 북주(北周) 왕조를 계승하여 약 370~800년간을 통일한 선비족 출신인 수(隋)나라 문제(文帝 : 푸堅) 개황(開皇) 15년(595년)에 과거제를 확립실시 하였다.

토정은 광해군 2년(1610년) 경술에 고향 충청도 보령에 화암서원을 건립하여 주향으로 모셨는데, 숙종 12년(1686년) 병인 3월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같은 해에 건립한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숙종 39년(1713년) 계사 5월에 자현대부(正2품) 이조판서에 증작주송(贈資憲大夫) 등과 함께 함께 최고유학자인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시호文靖)은 토정의 6대조이다. 목은이 하토정의 직계 조상으로 시호를 받은 이가 4명이나 되었고, 부친은 혼령(溫陵) 이치(李穡)였고, 백형은 인종 때 ‘백의정승(白衣政丞)’ 칭호를 들었던 이지번(李之蕃)이고 조카는 이산(李善) 등이다.

토정은 광해군 2년(1610년) 경술에 고향 충청도 보령에 화암서원을 건립하여 주향으로 모셨는데, 숙종 12년(1686년) 병인 3월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같은 해에 건립한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숙종 39년(1713년) 계사 5월에 자현대부(正2품) 이조판서에 증작주송(贈資憲大夫) 등과 함께 함께 최고유학자인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시호文靖)은 토정의 6대조이다. 목은이 하토정의 직계 조상으로 시호를 받은 이가 4명이나 되었고, 부친은 혼령(溫陵) 이치(李穡)였고, 백형은 인종 때 ‘백의정승(白衣政丞)’ 칭호를 들었던 이지번(李之蕃)이고 조카는 이산(李善) 등이다.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족친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